

평창시멘트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박스 암거의 거동에 관한 연구

Behavior of Precast Concrete Box Culvert Using Expansive Cement

조 병완* 태기호**

Jo, Byung-Wan Tae, Ghi-Ho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discuss the application of expansive additives for concrete to improve the durability of precast concrete box culvert by inducing the chemical prestress. The precast concrete box culverts using expansive cement are tested to verify the effect of expansive additive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itial cracking load and yielding load of the expansive cement members are increased when they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normal concrete. In the prototype precast concrete box culvert experiment, initial crack control effect and strength of joint are increased, but the deflection is decreased by expansive cement. Besides, reinforcement ratio is decreased about 14.6 percent in comparing with the case of using normal cemen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use of expansive additives to induce the chemical prestress was improved the durability in precast concrete box culvert.

Keywords : precast box culvert, chemical prestress, expansive concrete, durability

1. 서 론

국가 경제와 발전으로 지하철이나 고속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침식방지 및 험지의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이 점차 활기차 떠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지하에 위치함에 따라 시공이 콘크리트의 품질관리가 어려우며, 콘크리트의 탄성방법,

타설간격, 수화암 문제 등에 의해 취약한 단점이 초래되어 구조물의 내구성과 방수성 등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미 1961년부터 평창콘크리트와 평창화성 및 구조적 장점이 보고되었으며, 현재는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에 그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평창콘크리트는 평창터의 크기에 따라 수축보정율과 화학적 프리스

* 청희원 한양대학교 도시환경환경학부 보목강학 교수
** 학생회원, 한양대학교 보목강학과 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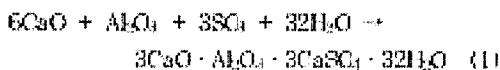
E-mail : civilianbro@dreamix.com (02-2290-0327)
●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02년 3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2002년 7월호에 보통집자로 게재하겠습니다.

트레스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저층 벽설구조물에 평창 판크리트를 사용한 경우, 수밀성이 증가하여 초기 단위체어 및 내구성이 뛰어나며, 수축률로 인한 저류 누수의 방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평창 판크리트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휨인 강간도가 증가하여 재봉의 경량화와 함께 경제적인 단면을 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리스트레스 판크리트 차하마스 구조물의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 평창제의 구속에 따른 화학적 프리스트레싱 효과를 분석하고, 접합부 청각에 이용된 수령 PC 강선의 칠공에 따른 내력증진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실험 개요설명을 실시하였다. 또한 막스 구조물 세그먼트 칠공시 누수가 되는 선단부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통하여 기존 차하 판크리트 막스 단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화학적 프리스트레싱

평창시멘트는 포블лен드 시멘트라는 달리 다른 후 수화초기에 평창하는 수경성 시멘트이다. 구속되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발생하는 과대한 평창은 단원을 유발하며, 그 평창이 적절히 구속되 경우 평창의 크기가 감소하는 대신 프리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판크리트에서 발생하는 프리스트레스의 크기가 0.2~0.7MPa 정도로 작고 전조수축으로 인한 인장응력을 상쇄시킬 만큼의 평창이 발생하는 시멘트를 수축포장 시멘트라고 하고 프리스트레스 강도가 6.9MPa 정도의 큰 평창이 발생하는 시멘트와 용력방성 시멘트라 하며 세미간 프리스트레싱 판크리트의 생산에 이용된다.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따른 Ettringite($3\text{CaO} \cdot \text{Al}_2\text{O}_3 \cdot 3\text{CaSO}_4 \cdot 32\text{H}_2\text{O}$)의 형성과 CaO 의 수화작용은 판크리트 내에서 보일성 평창을 유발하여 평창시멘트의 성장에 이용되어 왔다. sulfaluminate 낮평가는 시멘트의 성분인 $3\text{CaO} \cdot \text{SiO}_2$, $2\text{CaO} \cdot \text{SiO}_2$, $4\text{CaO} \cdot \text{Al}_2\text{O}_3 \cdot \text{Fe}_2\text{O}_3$ 에 상당한 양의 $4\text{CaO} \cdot \text{Al}_2\text{O}_3 \cdot \text{SO}_3$ 와 CaSO_4 를 첨가한 기관 포블лен드 시멘트 낮평이이며, 이를 같아서 만든 시멘트를 Type-K 평창시멘트라 한다. 그 외에 Type-M 평창시멘트와 Type-S 평창시멘트 등이 있으나 현재는 양업용으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산업용 평창시멘트에서는 평창률을 효과적으로 차이하기 위하여 보통의 포블лен드 시멘트와 sulfaluminate 낮평이 차별화된 비율로 섞는다. Type-K 시멘트의 평창반응식은 다음과 같다.¹⁰



이러한 평창판크리트의 평창을 억지하여 판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하는 방법을 화학적 프리스트레싱이라 한다.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는 방향으로 철근을 배치하면 철근과 판크리트의 부착에 의하여 철근에는 인장력, 판크리트에는 같은 크기의 압축력이 작용하여 프리년선방식의 부재와 유사한 기동을 보인다. 이때의 평창시멘트 혼입률은 40~85kg/m³(단위시멘트량의 10~15%)정도이며 평창률은 $2.0 \sim 10.0 \times 10^{-4}$ 정도이다. 다음의 Fig. 1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평창률은 식 (2)와 같이 주어진다.¹¹

$$\sigma_{sp} = \varepsilon_s E_s A_s / A_c \quad (2)$$

여기서, σ_{sp} 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응력, E_s 는 구속강재의 단성계수, ε_s 는 구속강재의 변형률, A_s 와 A_c 는 각각 판크리트와 구속강재의 단면적이다.

3. 평창콘크리트 실험

평창판크리트의 재료적 특성과 화학적 프리스트레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차하 판크리트마스의 일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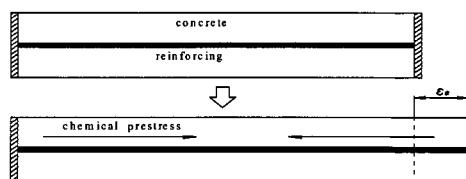


Fig. 1 화학적 프리스트레싱 모형

원 평면의 내부에 원 $1.5m \times 1.5m$ 인 바스켓과 6개를 제작하고 이를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유도와 포스트텐션에 의한 향상력과 도입을 변수로 하여 결합하여 5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3.1 사용 재료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400 kg/cm^2$ 으로 설계된 레미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이 값은 역사적 포리스트재성을 가하는 바스켓사의 제작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Table 1 참조). 또한, 재질별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평균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다음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배근된 원근은 설계항복강도가 $4,000 kg/cm^2$ 인 SD40A를 사용하였으며, 원근에 대한 재고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제로 저력마스와기는 같은 수립성 후 완전한 접합이

요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철의 긴장력에 의한 접합 이외에 지수제 및 그라우팅홀에 부수축 모드타를 주입한 나유 방수도포제를 사용하였다.

3.2 시험체 설계 및 실험방법

지하 바스켓과 일반적인 헬퍼인 내부공간 $1.5m \times 1.5m$, 깊이 2m 계획화 바스켓을 제작하였다. 시험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따른 강도설계법으로 설계하였으며, 사용된 설계조건은 Table 4와 같다. 긴장력의 산정시, 시험체와 콘크리트, 기초사이의 배설계수 μ 는 1.0으로 하였으나 5개의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5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설계시행식의 계원율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시험체의 종류와 특징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¹⁾

Table 1 콘크리트의 배합표

Type	구운온대 최대치수 (mm)	설계포 밀도 (kg/m ³)	구조설 계밀도 (%)	W/C (%)	S/A (%)	단위량 (kg/m ³)				총화재(%)	비고
						W	C	S	G		
Type-A	25	25±2	4±1	36	42.0	144	400	755	1,051	0	AE 0.04
Type-B	25	25±2	4±1	36	42.0	144	348	52	4.0	AE 0.04	

Type A : 보통콘크리트 Type B : 대발콘크리트

Table 2 콘크리트 압축강도 경과표

구분	Compressive Strength (kgf/cm ²)			
	증가암률 직후	8%	7%	28%
Plain Concrete	349	385	445	552
Expansive Concrete	370	424	473	582

Table 3 철근의 재료적 성질

종류	용융강도 (kgf/cm ²)	현장강도 (kgf/cm ²)	단성계수 (kgf/cm ²)	극한강도 (kgf/cm ²)
원근 (SD40A)	4000	4500~6100	2.04~106	6600

Table 4 주수축 모드타의 재료적 성질

종류	압축강도 (kgf/cm ²)	팽창률 (%)	Flow (%)	Bleeding (%)
국내 D사 (SDM 28인)	600~680	0.05	140	0.0

Table 5 설계시행식의 설계조건

항목	조건	비고
용화중	DB-24	
최장력(1개소)	3.35tonf	$\mu = 1.1 \sim 1.4$
도끼고	1.5m	포장층: 0.5m
콘크리트 압축강도(kgf)	340kgf/cm ²	
종의 내부마찰계수(μ)	0.07	
원근 임축용역(fy)	4000kgf/cm ²	

Table 6 실험 시험체의 표준 및 특징

시험체 No.	시험종류	특징	비고
P2	접합부 강도시험	접합	유리섬유(PVC Strand) 개방 T-Steel
C3	접합부 강도시험	접합	암축력·상장력(1.64cm ² /m)
P1	강도시험	비접합	보통관크리트
C1	강도시험	비접합	매립관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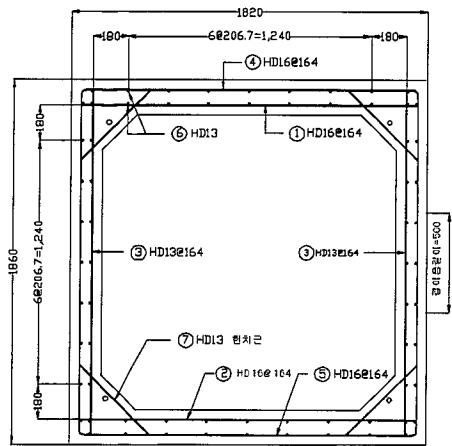


Fig. 2 실험 시험체 단면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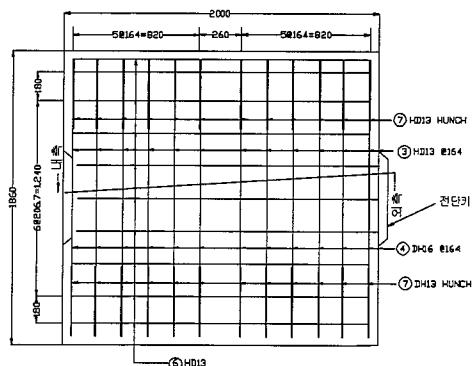


Fig. 3 실험 시험체 측면 제작

단일시험체의 펼장도 실험은 평창체와 사용유부와 번수로 하여 화학적 포리스토리스의 유효한 도입 여부를 복식하고자 하였으며, 접합부 강도실험에서는 포스트트렌션을 이용하여 접합부에 압축력 및 상향력을 도입한 시험체와 암축력만을 도입한 시험체의 역학적 성능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해 프레임을 설치하고 유압계를 사용하여 가려하였으며, 재하되는荷重량을 증정하기 위해 유압계의 하부에 로드셀을 설치하는 한편, 시험체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부슬라이브의 하부 중앙과 축대슬라이브의 외부에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상하부 및 축대슬라이브 중앙위치의 암축철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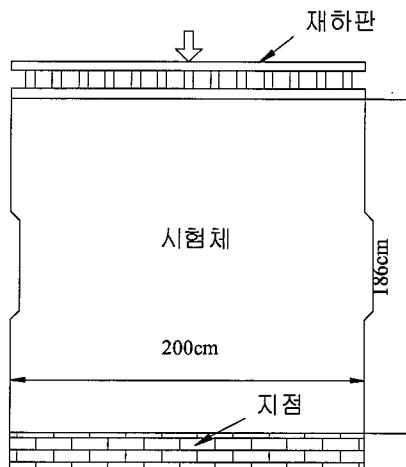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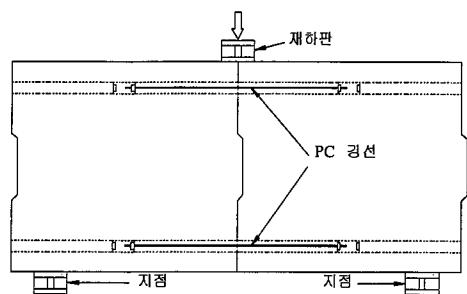
Fig. 4 단일세그먼트 재하설정

인장철근에는 각각 타설선에 세이지지를 설치하였으며 접합시행체의 경우에는 접합면에 글립 세이지지를 설치하여 두 시험체와 접합강도를 점토하고자 하였다. Fig. 4와 Fig. 5 그리고 Fig. 6은 각각 단일 세그먼트 강도실험과 접합부 강도실험의 하중 재하방법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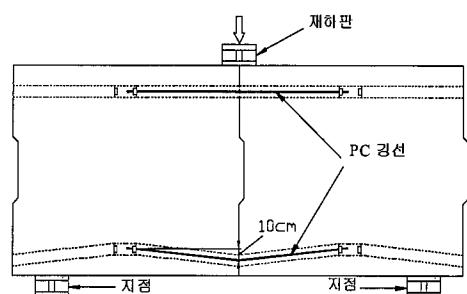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단일시험체의 강도실험

평창관크리트로 지작한 시험체 C1은 보통관크리트로 제작한 시험체 P1과 비교하여 유사한 휘어양상을 가지는 반면, 군인의 수가 적고 군인의 형태도 비교적 간접하였다. C1 시험체와 P1 시험체의 초기균열 발생



Iba 강성 적신 테이지



Iba 강성 극簿 테이지

Fig. 5 혼합 시험체의 하중 재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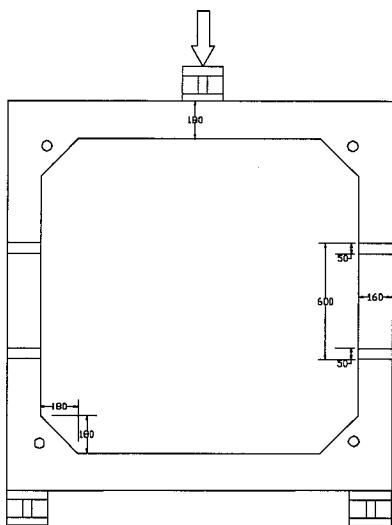


Fig. 6 시험체 단면도 및 하중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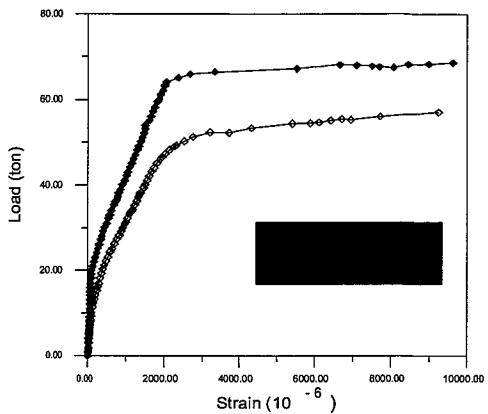


Fig. 6 하중-변형률도(실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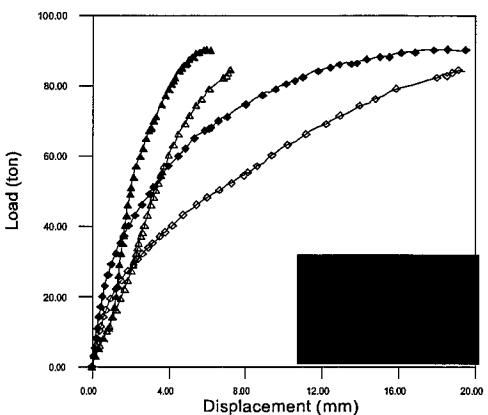


Fig. 7 하중-처칠 선도(실험체)

시 변형률은 각각 884×10^{-6} 과 680×10^{-6} 으로, C1 시험체에 도입되는 폴리스트레스트의 양은 416kgf/cm^2 으로 추정된다. 다만 Fig. 6은 상무술레브의 안장축 수평근 중앙에서 측정된 철근의 하중-변형률 선도이며, 초기균열이 발생한 이후 변형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흐설형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준다. Fig. 7은 상무술레브의 측면 중앙에서의 치점과 하중축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상무술레브와 속부 모두 생강콘크리트를 사용한 시험체의 치점이 작았으며, 하중이 치점에 재하되는 상무술레브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치점의 차이는 철근이 향복하기 전까지 증가하였으나, 원근이 향복한 뒤 감소하였다. C1 시험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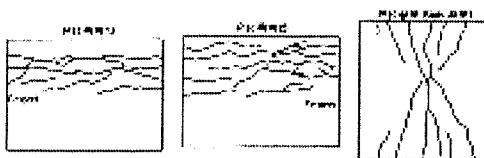


Fig. 8 Ibf, Ibf 콘크리트 접두어 따른 단단기 시험체의
파괴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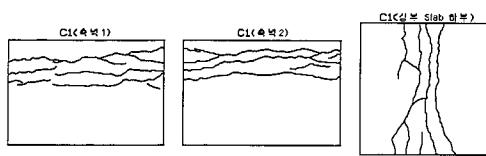


Fig. 8 Ibf, Ibf 콘크리트 접두어 따른 단단기 시험체의
파괴실험

P1 시험체와 비교하여 초기균열하중, 항복하중, 최대 하중에서 각각 47.2%, 35.5%, 6.6% 각각 더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차집의 채미에서도 상대적인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설립시험체의 경우에도 맹장재에 의한 화학적 프리스트레스가 유효하게 도입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파괴시 균열양상도 Fig. 8과 같이 맹장콘크리트를 사용한 시험체가 작은 수의 균열과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접합시험체의 강도실험

접합부에 하중을 파괴시까지 저하하여 다음과 같은 파괴양상을 얻었다. 상부슬래브 하부의 인장측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접합면을 따라 전진하였다. 시험체의 정점에서 1/3 치점까지 전진한 균열은 선단기 가 설치된 측벽공방에서 며칠되었으며, 하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균열은 접합면이 아닌 선단기 뒷 판통하여 전진하였다. 접합부는 세그멘트 사이의 임의 불연속면을 의미하므로 접합부를 통하여 세그멘트간에 전단응력과 압축응력이 선단화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접합부의 선단부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는 선단기 의 유무, 선단기의 형상(접출비, 경사각)과 있수, 표면상태, 구축용력, 하중형태, 콘크리트의 강도 등이다.²¹⁾

Table 7 접합부 강도시험 결과

시험체	최대하중 (kN)	인장부 균열폭 (mm)	인장부 균열폭 (mm)	비고
CS	61.66	19.4	10.93	암축력 상향력
PS	77	25.41	9.24	암축력

설정실험에서 맹장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강선을 칠곡으로 배치한 시험체 CS와 보통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강선을 칠곡으로 배치한 시험체 PS 모두 선단기와 차비 파괴양상을 지었거나 순위에 의한 수평분리가 아니라 선단기 차면부의 shear off였으며, PS 시험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중에서 shear off가 발생하였다. 선단기의 행상(d/h = 1/12)은 적절하였으나, 선단기의 외측에서 축벽으로 진행되는 사면강구원을 제거하기 위한 범도의 선단철근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포스트텐션의 강선을 칠곡으로 배치하는 것이 시험체의 변위와 감소시키는 결과적으로 접합부의 구축용력을 크게 높여 접합부의 선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CS와 PS시험체의 시험결과를 다음과 Table 7에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맹장재를 사용하고 상향력이 작용해도 불구하고 강선을 칠곡으로 배치한 CS 시험체가 최대하중에서는 5.7%, 연직치짐에서는 23.7%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5. Shear key 거동에 관한 해석적 연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선단 하중으로 인하여 Corbel, 프리에스트, 콘크리트 부재사이의 접합부, 선단면의 수평 접합부 등에서는 Sliding이나 Shear off 유형의 선단 파괴가 발생하며, 콘크리트 선단사향(무작려), 선단면에 수직 혹은 경사된 절근의 타우형 작용, 선단 파괴면으로부터 위출된 물체의 맞불점 작용, 콘크리트 표면사이 선단면에서의 마찰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선단 선단 사동은 크게 타우형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물체의 맞불점, 타우형 작용, 선단면에 수직방향구속 등이 선단사동에 영향을 미침, 최종파괴는 기관생 균열면을 가로지르는 추가적인 균열의 발생 없이 기존균열을 따라



Fig. 9 철근부의 균열양상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초기균열면이 없는 경우로 천단파괴는 천단면에 경사진 방향으로 수많은 균열이 생성된 후 발생하며, 좌중파괴는 균열방향에 거의 평행하게 형성된 압축 스토러트의 콘크리트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능개선된 지하바스 암기가 지중에 배설될 경우 상부하중이나 토압으로 인하여 접합부가 부재시 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접합부에 대한 유한요소석식을 통하여 파괴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²⁾

5.1 유한요소석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천단파괴(자도, 위출비(Shear Key)의 시연과 뒤출의 비), 구속응력(가계적 프리스트레스)을 변수로 하여 이에 따른 천단강도, 용력분포 및 균열정상을 알아보고자 사용유한요소 프로그램인 LUSAS를



Fig. 10 인장부의 균열 양상

Table 8. 무수축 모델타입의 풀설치 (단위 : kgf/cm²)

	fracture energy(G)	initiation stress	relative displacement
mode I	1.24	43	0.00002
mode II	2.84	62	0.00002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340 kgf/cm², 인장강도 35 kgf/cm²인 경연용력 요소를 사용, 균열진전 모수를 관찰하기 위하여 균열 콘크리트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최대변형률은 0.002, 파괴 변형률은 0.003으로 하였다. 계면접착재로 이용한 채팅 3일째 압축강도가 500 kgf/cm²인 무수축 모델타입은 interface mesh는 적용하였으며, 음성치 값은 Table 8과 같다. 또한 한 장 적용시 구조물의 안정과 슬라이딩 방지와 위해 적용한 프리스트레스 힘은 구속응력으로 환산하여 축면에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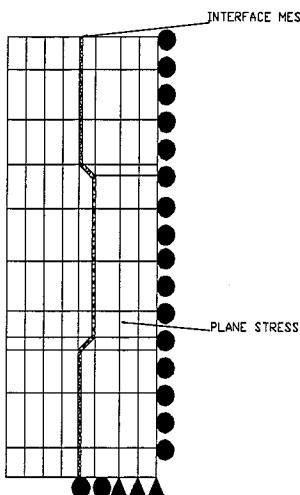


Fig. 8 유한요소 모형도

해석 모델링의 선체 규격은 45cm × 140cm이며, 경계조건은 완전 선단마파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점유 쟁성하였으며, 하중의 전중으로 원한 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델링 상부 선면에 하중을 차화하였다. 접촉면 해석과 군원콘크리트 해석의 비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석단위는 일정 증가가 아닌 수직정도에 따라 하중증가율 조절하였으며, 구속응력은 10 kgf/cm²와 50 kgf/cm²의 두 가지 경우를 적용하였다. 각각의 모델링 모양은 Fig. 8, 9와 같다.

5.2 해석결과

시험체의 선단강도와 평균 선단 강도($\pi c/\sqrt{f_{ck}}$)로 비교분석하였다. 해석 후, 선단강도 산출은 평균 선단강도 산출식인 식(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sigma = \frac{V}{A} \quad (3)$$

여기서, σ : 선단응력(kgf/cm²)

V : 최대 선단하중(kgf)

A : 경계면유 수직이동분하는 면적(c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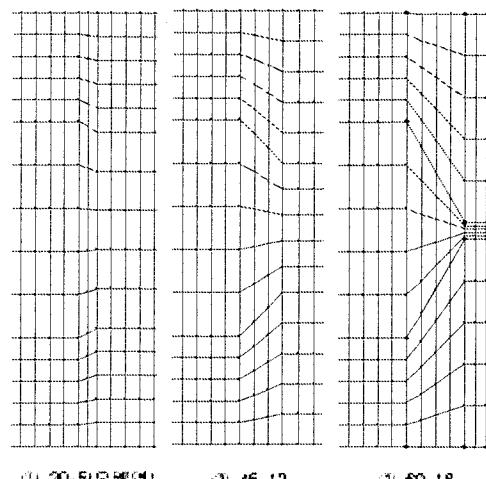


Fig. 9 결사각도 및 흑설에 따른 대표적 모형

평균 선단강도를 구할 때 필요한 최대 선단 하중은 해석과정에서 도출되는 하중-변위 곡선을 이용하였으며, 극한 첨정에서의 하중을 사용하였다.

5.2.1 구속응력이 10 kgf/cm²일 때의 선단강도 및 특성

수치들은 접촉강도에 비례하는 관코리트 선단강도의 성질을 보정하고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정규화 시킨 값이다. 각 변수별로 산출된 최대 선단강도는 Table 9과 같다.

구속응력이 10 kgf/cm²인 경우 Fig. 10과 Fig. 11을 보면 선단적으로 접촉강도가 접수부 선단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1에서 접촉비가 작은 경우에는 30°에서 가장 큰 값을 보여 주지만 접촉비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각 각도별 선단강도 차이가 아주 미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계면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접촉비가 커지고 구속응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각도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로타리의 무차례에 의해 최대선단력에 도달할 때까지 슬립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체 각으로 접촉비가 10/60이고, 경사각이 45°일 때 가장 큰 선단강도를 보았다.

Table 9 번수별 치대한단강도 $\beta_{sh} = 340 \text{ kg/cm}^2$

제작모양 (경사각-높이비)	30 - 3	30 - 8	30 - 12	40 - 3	40 - 8	40 - 12	60 - 3	60 - 8	60 - 12
치대한단강도 (kgf/cm ²)	63.7	71.1	74.2	63.7	72.4	76.8	62.2	70.6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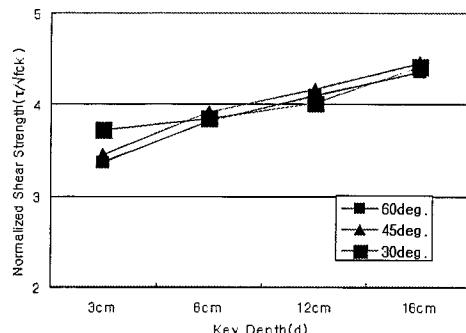


Fig. 10 키출깊이에 따른 절교선단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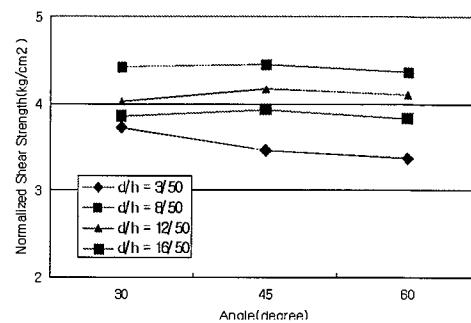


Fig. 11 경사각에 따른 절교선단강도

Table 10 번수별 치대한단강도 $\beta_{sh} = 340 \text{ kg/cm}^2$

제작모양 (경사각-높이비)	30 - 3	30 - 8	30 - 12	40 - 3	40 - 8	40 - 12	60 - 3	60 - 8	60 - 12
치대한단강도 (kgf/cm ²)	84.6	99.2	118.8	93.5	111.7	122.2	79.8	88.8	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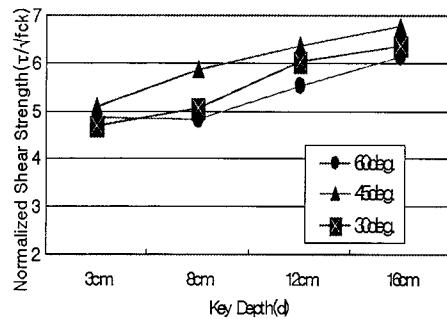


Fig. 12 키출깊이에 따른 절교선단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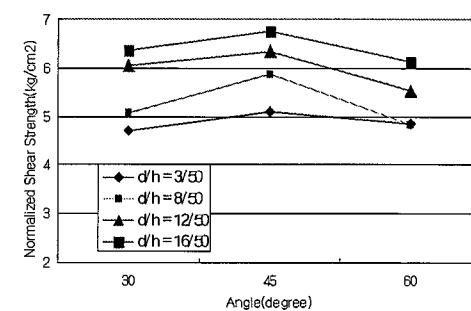


Fig. 13 경사각에 따른 절교선단강도

5.2.2 구속응력이 50 kgf/cm^2 일 때의 선단강도 및 특성

대부분의 경우에서 구속응력이 10 kgf/cm^2 일 때보다 군일선단강도에 이어 끝까지 침방향 변위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면에 작용하는 구속응력이 한 관계로 충돌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충돌비가 증가할수록 선단강도는 현세 하기 증가하였는데 구속응력이 10 kgf/cm^2 일 때에 비해 증가정도가 2배 가까이 되었다. 이는 구속응력의 크기가 접합부 선단강도에 치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사각이 45° 이고 충돌비가 가장 큰 때 선단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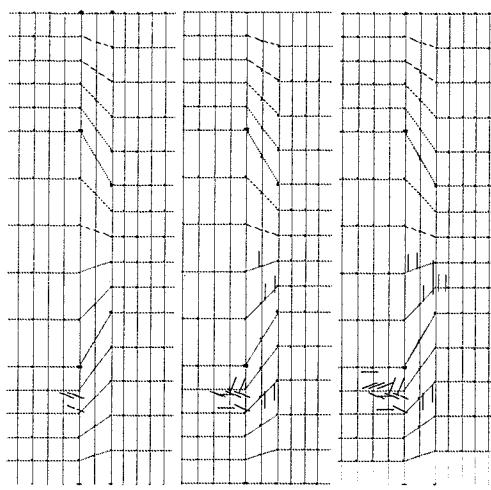


Fig. 14 원반적인 군연 분포(해석모형) : 80-80

Fig. 14 원반적인 군연 분포(해석모형) : 80-80

5.3.3 각 실험체별 군연 양상 및 분포

원반적인 군연양상을 먼저 해중이 증가하면서 선단기 아래쪽의 경첩구부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한다. 해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인장 군연이 발생하여 선단기 해단이나 옆면에서도 군연이 신선되다가 파비강도에 도달하면 선단기 차체와 부근에서 부수히 많은 군연이 발생하면서 파괴되었다. 뒷줄바가 큰 경우일수록 선단기 접합면 확보보다는 선단기 아래쪽에서 군연이 시작되어 선선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뒷줄바와 경사각이 작은 경우 선단기 차체는 암비보다는 shear off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활동력이 작용함에 따라 sliding을 방지하여 선단기 차체가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로타로의 강도가 비교적 큰 편으로 접합면을 통과하여 군연이 신선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군연 신선모습(Fig. 14)과 마찬가지로 융역 분포(Fig. 15) 또한 초기에는 선단기 아래쪽에서 융역집중 모습을 보이다가 서서히 위쪽으로 그 분포를 옮겨가는 경향을 보았다.

5. 결 론

마스양거와 성능개선을 위한 생장기술 이용한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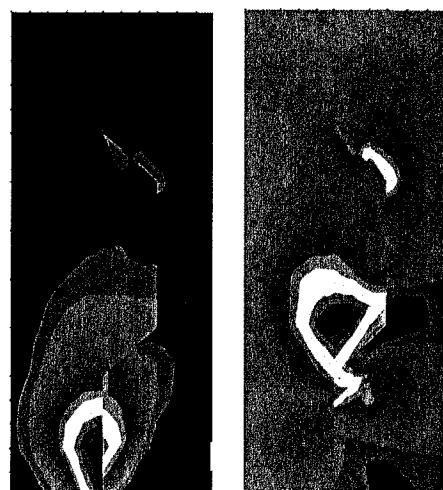


Fig. 15 원반적인 군연 분포(해석모형) : 45-120

Fig. 15 원반적인 군연 분포(해석모형) : 45-120

적 프리스트레싱, PC강선와 철근에 따른 설계모형을 힘과 선단기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1) 단일 세로먼트에 대한 강도시험에서 평창콘크리트을 사용한 시험체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수축보강 작용으로 군연수와 죽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초기균열하는 최대하중 및 단단장구의 향복하중은 모로타로트과 사용한 경우보다 각각 47.2%, 6.6%, 35.5% 큰 것으로 나타나 박스구조에서도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2) 접합부 강도시험에서 선단면과 압축면을 선별하기 위해 설치된 선단기는 접합부의 군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텁정하중 이상에서는 차수가 파괴되며 끝단에서 사인장군연이 진행되는 shear off가 발생하였다. 시험체 중 강선을 철근으로 대체한 경우에 shear off의 발생하중이 높게 나타난는데, 이는 강선의 절연배치로 도입된 상향력으로 인해 차짐이 감소, 결과적으로 선단면의 감소로 이어서 강선을 직선배치한 시험체에 비해 상대적인 접합강도의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원단된다. 강선을 칠과비친한 시험체가 칙성으로 배치한 시험체에 비해 연직차감 23.7% 정도 감소하였으며, 초기균열하중과 최대하중, 그리고 균열와 수와 쪽에서 성능의 향상이 있었다.
3) 구속용역의 크기가 선단강도를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로 나타냈으며, 5배정도 차이가 나면 선단강도 같은 거의 50%정도 상승하였다. 특히 경사각이 45°일 때 뚫음비의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향상하였다.
4) 선단에 의한 초기균열은 대부분 선단기 아래쪽 주근에서 시작하여,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인 강균열과 결합하여 외쪽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선단기가 shear 되었다. 선한변수 선장에 있어서 구속용역과 계면침착부 강도가 큰 관계로 sliding현상은 파쇄 이후에 나타났으며, 구속용역의 크기가 슬립발생시점이나 슬립방식이 다른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 「도로교 기준지침서」, 1996.
2. 장석훈 「프리캐스터 프리스트레스터 콘크리트 세그먼트 막스 커터 교량의 접합부 재동연구」, 서울대학교, 1994.
3. 조승호, 「제철 판넬 프리캐스터 콘크리트 구조 수직접합부 결합기와 선단내력의 관찰 실험적 연구」, 원광대학교.
4. Clyde E. Kusler, Donald W. Pleifer "Expansive Cement Concrete - Present State of Knowledge", Journal of Material, ACI Journal, Vol. 77 No. 5, 1970, 681-689.
5. P. Kumar Mehta, Paulo J.M. Monteiro "Concrete - structure, properties, and material", 2nd Edition, Prentice Hall, 1997.

(접수일자 : 2001년 7월 6일)